

도서명	생명윤리 이야기 - 공과를 다한 도전받은 인간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	
<p>종교 급변하는 과속에 따라 변화하는 사람들의 생명윤리 인식과 현상, 그에 따라 변화하는 의료계와 법안등에 관심이 많은데 대학교 추천도서를 찾아보다가 쉽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는 것을 보고 선택하게 됨</p> <p style="text-align: right;">다양한 생명윤리의 내용이</p>	
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	
은송희 - 안락사	<p>이 책을 선정하고 그 당일날 뉴스에서 동원안락사에 대해 보았었다. 책 목차를 살펴보다 뉴스에서 보았던 안락사에 대해 쓰여 있길래 눈에 띄었고 인상깊었던 구절은 안락사도 과연 인간의 권리 일까? 라는 책의 질문이 인상깊었다. 아무리 인권이라도 나는 그 질문에 반대하고 싶다.</p>
윤예지 - 이종이식	<p>나는 이종이식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극점을 가장 인상깊게 보았고, 이 부분이 가장 피곤했다. 왜냐하면, 이종이식은 환자가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받는데 아니다. 동물한테, 즉 사냥이 아닌 생을 한테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기 때문이다.</p>
이문종 - 줄기세포	<p>재생 의학을 리제기 의학에서 크게 기대하는 분야로, 현대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여 여러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p> <p>모든 세포와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는 그 자체로 흥미로웠고 의학기술 발달에 따라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의 필요에 충족하여 배양하여 교체할 수 있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학, 생명계열의 획기적인, 또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같았기 때문이다</p>
이승희 - 인간복제	<p>수정란에서 발생해 일단 분화된 우리 몸의 일반 조직 세포는 다시 수정란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세포로 재분화할 수 없다고 나온다. 그래서 인간 복제를 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p> <p style="text-align: right;">관심에서 많이 들었따.</p>
정예진 - 인간복제	<p>이성적인 논의를 떠나도 자신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데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인간 복제다. 앞서 언급한 라멜리아처럼 자신의 광표적 신경 때문에 복제를 시도하려는 잠란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항우울 약사가 세끼 킬킬로 제세포 핵이식 복제 배아를 만들어 줄 세포를 수확했다면 했을 때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며 흥분과 논란에 빠져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p>

이은송 - 낙태는 물론이고 사형성된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도 비윤리적인 방죄이다. 어떠한 목적에서도 이를 파괴하는 행위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다.' 나는 세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입장이고 오히려 사회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낙태가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몇일 전에 헌법에 명세되어있는 낙태죄가 위헌결정을 받아 사라졌다.

은송희 - '내 장기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다. 생명이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 장기 즉 신장, 간의 일부 등에서 긍정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병원에서 장기기증 사례로 장기를 받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병원은 기지 않고 바로 장기매매 브로커를 끼고 장기를 돈으로 사는 것 자체에 불법이고 글썽이는 장기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그 이식을 뿌리치지 못할거 라고 하였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여도, 아파하는 오빠를 보아도 아닌건 아니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여지 - 글쓴이는 이중이식이 어떻게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말 어떠한 관점으로 보든 정말 사람에게 동원(대여)의 장기를 이식하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험하다. 사람은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아야 나중엔 부작용도 안 생기고, 슬쩍히, 동물한테 장기를 받는다는 사상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이다. 이 이중이식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안했으면 좋겠다.

이승희 - 이중이식 실험을 하면서 동물은 상대로 실험을 한다. 동물들도 사랑과 똑같이 고통 받는다. 동물을 이식 목적으로 제조, 사육, 도살, 실험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동물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위험해서 보호해줘도 지나치게 실험상대로 동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예진 - 복제된 양, 돼지가 있지만 과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 인간 복제가 더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복제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항상 좋은 행동만 한다면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생명체나 사랑이 나타날 것이며,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은송 - 이 책을 읽은 ^후 유리문제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볼 수 있었고 과연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유리문제들을 ^{현재} 우리사회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졌다. 그렇고 함께 재미있게 설명이 되어있어서 받아들이기 수월했다. 또 한가지 과정에서 편안함도 느껴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특히} 분해 배우는 생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시 나와서 반가웠다.

문승희 -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면 나는 대체로 어떻게 할 것 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다. 책 자체가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가 시간이 조금 걸렸고 나중에 토론을 할 때는 조금더 쉬운 책을 선정했었다. 인간복제, 안락사, 유전자, 장기이식 등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다.

문예지 -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처음엔 진짜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인간복제문제라 이종미식등 이런 생명 유리문제를 보면서 그것들을 찬성하는 의견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컸기 때문이다. 책 자체는 읽고 나니 지식이 많아지는 것 같고, 모르고 살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

이승희 - 이 책을 읽으면서 사소한 거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알게 되었다. 생명 윤제에 대해서 지루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읽다보면 좋은 내용들도 많다. 이런 책이어나가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딱히 어렵진 않았다. 중간중간이 그림이 있어서 지루함을 덜 해줬던 것 같다.

정예진 - 처음 이 책을 선택한 구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재미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나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중간 중간 삽입된 펍으로 지루함을 느끼기 전에 다시 흥미를 주었고, 이 책이 유전자, DNA, 생명 등에 대해 다룬다 싶어 이래니 내 직업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였지만 이 책을 읽으니까 관심은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은숙 -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청소년으로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더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문제 문제에 주목하고 해석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겠다. 또 포럼에도 관련 문제나 이슈 기사를 찾아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은송희 - 처음 책 선정 한 것을 보았을 때 과학 관련 책 인 줄 알았는데 책은 읽으면 읽을 수록 자궁 사회현상 문제 책이었고 처음 눈에 들어왔었던 안락사 문제에 대해 읽어보고 나의 반대 의견도 받아드릴 준비도 어느정도 생겼다. 책을 읽으며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도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의견이 많이 다를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관심했었던 사회문제들로 악아하기 위해 뉴스 시청은 보기 힘들어도 하루에 1개씩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정예진 - 평소 유전자(DNA), 인간 복제 등 교과서에서 다루거나 인터넷 뉴스에 올라와 있어도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꿈도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이 책을 읽으면서 문제점이나 DNA 유전자, 복제 등에 자세히 알게 되어 더 관심을 가지고 받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겠다.

이승희 - 과학과 관련된 책인 거 같아서 처음에 꺼려했지만 이 책을 읽고 조금 달라졌다. 내가 관심없는 분야를 보게 되더라도 그 책을 안 읽어야 하는 행동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문예지 - 과학은 정말 싫어해서 책도 정말 보기 싫었지만,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읽고, 과학이 약간 재미있어지고, 좀 유익해지는 거 같아서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책들은 많이 읽고 유익해져야 겠다.

점점 과학이 발달되어가는데에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은 너무나도
한정적이다. ^{이에 따라} 점점 커져가는 윤리적 감극을 우리는 굳이 ^{우리}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적
가치관을 갖 대로 바꿔야 할까? 어차피 우리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시간의 흐름과 함께} 타협해 가는 것과
과학의 발달에 지배당하는 것의 ^{새로운} 본질은 같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모든 생명 윤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까지 ^{알고는 있지만 잘 정리되지 않고 머릿속을 날아다녔던 것이} 잘 정리되어 시대에 따른 흐름을 정리 & 파악할 수
있어 뜻깊었고 좋았다. 책을 처음 접해보는 거라 무척 어렵고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가} 다행히
나온 것 같고 모두들 만족하고 많이 배운 느낌이라 뿌듯했다.